

濟州道 典籍類 綜合調查報告

耽羅文化研究所

目	次
I. 調查目的	ㄷ) 時代別 分類
II. 調查經緯 및 調查委員	ㄹ) 內容別 分類
(1) 調查經緯	(2) 保管狀態
(2) 調查日程	(3) 特異한 典籍
(3) 調查委員	(4) 濟州關係 典籍
III. 調查內容	IV. 對策 및 問題點
(1) 調查典籍 分類	(1) 對 策
ㄱ) 地域別 分類	(2) 問題點
ㄴ) 版種別 分類	

I. 調查目的

지금 韓國은 先進國을 내다보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그 跳躍的 발전은 눈부신 바 있지만, 연면히 이어내려 오는 韓國的 精神文化의 啓發은 역사적 전환기이면서도 當爲的 線上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근간 한국 특유의 精神文化를 定立, 宣揚하는 데 역점을 둔 시책이 수행되고 있거니와, 시급한 과제가 실로 山積해 있으므로 그 시책이 더욱 舉族的 次元에서 추진되는 한편, 관심 있는 기관과 개인의 분발이 촉구된다.

精神文化 정립에 중추적 기능을 지니는 문화재 가운데도 특히 勳產文化財나

無形文化財인 경우는 급격히 逸失 湮滅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의 조사연구 작업이 실로 화급한 실정이다. 民族文化暢達을 위하여 濟州의 珍重한 학술 자원을 조사발굴 내지 분석연구 작업을 추진하는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에서는 動產文化財의 일부인 典籍調査를 시급히 실시해야 함을 통감하던 차, 이번 文化財管理局의 用役에 따라 이를 개관적으로나마 수행하게 되었음을 萬幸으로 여긴다.

제주도내에 산재된 전적의 所在와 소장자를 현지답사에 따라 확인하고, 조사 연구한 바를 각각 전적조사카드에 種別로 기입한 다음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 典籍을 개관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이의 恒久的 보존과 활용에 이바지하려 한다. 이 조사는 전적을 통한 학술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韓國學研究 내지 韓國의 精神文化의 창달에 一翼을 담당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II. 調査經緯 및 調査委員

(1) 調査經緯

1983년 4월말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앞바다 海底에 침몰된 遺物을 조사 하려고 來道했던 文化財管理局 動產文化財係長과 ‘全國典籍調査計劃’에 대한 의견이 오간 뒤 그해 5월 3일 文化財管理局으로부터 ‘전적종합조사계획서 제출의뢰’ 공문을 접수한 本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5월 10일 그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해 6월말 용역계약체결을 바라는 문화재관리국의 연락에 따라 7월 7일 金榮敦教授가 직접 출장하여 문화재관리국과 “제주도내의 전적류종합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전적조사는 전문성을 지닌 작업인 만큼 조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의 협조 아래 典籍專攻의 문화재전문위원을 초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7월 19일과 20일에 걸쳐서 黃天午전문위원을 모시고 본연구소에서는 韓國典籍에 대한 特講을 실시하였다. 지역적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제주도에

서 전적관계 특강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전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안으로 受講對象者를 확대하였다. 곧 本調査에 참여하는 조사위원은 물론 제주도문화공보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 민속박물관과 도서관 및 국어국문과 국어교육과 사학과 미술교육과 등 관련 학과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성황리에 특강을 치렀다.

이 특강은 전적에 대한 일반이론 및 전적문화재조사서 작성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본대학교 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한 전적을 대상으로 조사실습을 겸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전적조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조사는 조사일정을 3차로 구분하고 조사자별 분담지역을 설정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함께 제주도의 행정적인 측면지원을 얻어 실시하였다. 그 결과 391種 1,204冊을 조사완료하였다. 조사된 전적의 분류는 조사위원 高昌錫敎授가 담당하였다.

(2) 調査日程

그 調査日程은 아래와 같다.

1 차조사 : 1983. 8. 1 ~ 8. 6

2 차조사 : 1983. 8. 7 ~ 8.31

3 차조사 : 1983. 9. 1 ~ 9.10

보고서작성 : 1983. 9.11 ~ 9.20

1 차조사는 本大學校 民俗博物館 所藏典籍을 대상으로 全調査委員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곧 전적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사서 정리방법을 통달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2 차조사시 실시되었으며, 조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 차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일정에 따른 지역별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濟州市 : 1983. 8.22 ~ 8.27

西歸浦市 : 1983. 9. 1 ~ 9. 5

朝天面 : 1983. 8. 8 ~ 8.13
 舊左邑 : 1983. 8.15 ~ 8.20
 涯月邑 : 1983. 8. 8 ~ 8.12
 翰林邑 : 1983. 8.13 ~ 8.17
 翰京面 : 1983. 8.18 ~ 8.22
 大靜邑 : 1983. 8.23 ~ 8.27
 安德面 : 1983. 8.28 ~ 8.31
 南元邑 : 1983. 8. 8 ~ 8.13
 表善面 : 1983. 8.15 ~ 8.20
 城山邑 : 1983. 8.22 ~ 8.27

(3) 調査委員

本調査를 수행함에 있어서 調査委員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研究責任者 : 金榮教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長, 文化財專門委員)

調査委員 : 玄容駿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長, 文化財專門委員)

高昌錫 (濟州大學校 史學科 教授)

調査補助員 : 姜榮峰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研究員)

高光敏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 助教)

金智弘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助教)

또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楸子島를 제외한 濟州道 全地域을 구획 분담하였다. 조사자별 분담지역은 다음과 같다.

玄容駿·高昌錫 : 西歸浦市 安德面 大靜邑 濟州市

玄容駿·高光敏 : 朝天面 舊左邑 城山邑

金榮教·金智弘 : 涯月邑 翰林邑 翰京面

金榮教·姜榮峰 : 南元邑 表善面

Ⅲ. 調查內容

(1) 調查典籍分類

ㄱ) 地域別 分類

총 391種 1,204冊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전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濟州市 : 59種	166冊	西歸浦市 : 61種	126冊
涯月邑 : 115種	361冊	南元邑 : 7種	26冊
翰林邑 : 75種	225冊	城山邑 : 29種	63冊
翰京面 : 18種	73冊	舊左邑 : 1種	1冊
大靜邑 : 6種	9冊	朝天面 : 20種	154冊
		計	391種 1,204冊

도내各市邑面을 망라하였으나 安德面의 경우 典籍所藏者를 찾아 조사위원들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이미 박물관 직원임을 사칭하고 전적을 가져가 버린 뒤어서 조사할 수 없었고, 表善面의 경우는 班村이었던 마을들이 4·3 사건 때 전적류가 거의 擲失되어 버렸으므로 여러모로 수소문하였지만 대상을 찾을 길이 없어 제외되었다.

ㄴ) 版種別 分類

총 391種 1,204冊에 대한 版種別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木板本 : 186種	草稿本 : 9種
筆寫本 : 78種	板下本 : 1種
石印板 : 65種	其他活字本 : 3種
原本 : 20種	其他木活字本 : 8種
鉛活字本 : 32種	

이상의 분류를 볼 때 첫째로 木板本 다음으로 筆寫本이 78種에 이름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중에는 당시 종이 귀했었기 때문에 인쇄된 典籍이나 公文書를 뒤집어 활용한 筆寫本도 많았으며, 제주도에서 생산되었던 楮紙인 ‘土紙’를 활용한 筆寫本도 있었다. 곧 北濟州郡 涯月邑 錦城里라든지 西歸浦市 下孝洞에서 종이를 만들었다는 口傳을 실제 확인하게 되었음은 매우 뜻 있는 일이다.

둘째, 木板本에서 특이한 사항은 제주도적 내용이 서술된 婚禮笏記를 볼 때 제주도에서도 木板本을 제작했었으리라 추측되기도 한다. 婚禮笏記는 제주도 婚俗이 너무 번거로와 禮에 벗어나므로 이 책을 만들어 각 마을에 배포함으로써 이에 따라 禮를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著者의 序文內容으로 볼 때 제주도에서 간행된 木板本일 가능성이 짙다. 板下本으로 性命古訓이 조사되었으며 石印板도 많이 散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時代別 分類

조사된 전적을 출판연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400년대 :	1種	1900년대 :	84種
1600년대 :	11種	朝鮮朝 中期 :	1種
1700년대 :	22種	朝鮮期 後期 :	162種
1800년대 :	56種	朝鮮期 末期 :	55種

연대 미상인 경우는 저자, 서문 등을 참고하여 朝鮮朝中期(壬亂前後) 朝鮮朝後期(朝鮮 仁宗~哲宗年間) 朝鮮朝末期(朝鮮 高宗~純宗年間) 등으로 추정하고 구분하였다.

ㄹ) 內容別 分類

조사된 전적의 내용별 분류는 4部分類法(經史子集)에 따랐다(書名 다음의 괄호속 숫자는 種數를 말함).

① 經部

經部에 해당하는 전적은 다음과 같다.

易類： 10 종 44 책
 書類： 11 종 54 책
 詩類： 7 종 28 책
 春秋類： 3 종 5 책
 禮類： 14 종 43 책
 孝經類： 1 종 1 책
 小學類： 7 종 13 책

四書類

總集·通義： 30 종 46 책
 大學： 8 종 8 책
 中庸： 9 종 9 책
 論語： 6 종 32 책
 孟子： 17 종 74 책

易類에 속하는 것으로는 周易(1) 주역언해(周易諺解 2) 周易傳義大全(3) 소주석화주역(四柱自解書周易 1) 正本集註周易(2) 御案易經備旨(1) 등이었다.

書類에는 書經(1) 書傳大全(6) 서전언해(書傳諺解 3) 答論學書傳古文書(1) 등이 있었으며, 詩類로는 詩經(1) 시경언해(詩經諺解 1) 詩傳(1) 詩傳大全(1) 등이 있었다. 春秋類에는 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1)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1) 春秋左氏詳節句解(1) 등이 있었다.

禮類에 속하는 것으로는 四禮便覽(1) 四禮祝式(3) 喪禮(1) 喪禮備要(1) 喪祭類抄(1) 禮記(1) 禮記集說大全(1) 疑禮問解(1) 增補四禮便覽(2) 婚禮笏記(2) 등이 있었다. 孝經類로는 孝經大義 1種이 조사되었으며 제주에서 筆寫한 것이다.

다음 四書類 가운데 總集·通義에 속하는 것으로 四書朱子本義匯參(1) 新訂四書補註備旨(1) 등이 조사되었으며, 大學에는 大學講說(1) 大學章句(2) 大學章句大全(4) 大學或問(1) 등이다.

中庸에는 중용언해(中庸諺解 3) 中庸章句(1) 中庸章句大全(4) 中庸或問(1) 등이었고, 論語에는 론어언해(論語諺解 2) 論語集註大全(3), 孟子에 관한 것으로는 孟子講演(1) 링조언해(孟子諺解 6) 孟子集註(1) 孟子集註大全(8) 原本具解孟子集註(1) 등이었다.

小學類에서도 字書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全韻玉篇(3) 校訂全韻玉篇(1) 등이 조사되었고, 韻書에는 御定奎章全韻(8)이, 蒙求書로는 古類合(1) 千字(1) 千字文(2) 漢日鮮三體千字文(1) 등을 조사하였다.

② 史部

史部에 속하는 조사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編年類： 6종 37책	詔令·奏議類： 4종 4책
別史類： 12종 39책	傳記類： 4종 4책
雜史類	譜系類： 4종 4책
鈔史： 6종 6책	政法類： 5종 5책
史評： 1종 13책	地理類： 9종 16책

編年類에는 少微通鑑(2)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3) 通鑑五十卷詳節要解(1)가 조사되었고 別史類로는 東萊先生西漢詳解(1)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1) 半萬年朝鮮歷史(1) 史要聚選(5) 詳密註釋史略諺解(1) 十九史略諺解(1) 池氏鴻史(3) 등이 조사되었다.

雜史類 가운데 鈔史로는 史記英選(1) 史漢一統(1) 選史(1) 耽羅紀年(1) 編覽取抄記(1)가, 史評으로는 史記評林(1)이 조사되었다. 譜系類로는 雞林世蹟(1) 新羅朴氏遡源錄(1) 晉州姜氏世系(1)가 있었다.

傳記類에는 東國文獻(1) 續修三綱錄(1) 尤菴先生年譜(1) 履歷(1)이 조사되었으며, 政法類로는 別監秦永萬所志(1) 幼學秦永萬別監差定完文(1) 義倉節目(1) 旌義縣安民庫新設節目(1) 濟州儒生蔡亨鳳等謹齋沐再拜上書(1) 등이 있었다.

詔令·奏議類에 속하는 것으로는 教旨를 들 수 있는데 4種이 조사되었다. 地理類로는 朝鮮寰輿勝覽(2) 濟州島便覽(1) 耽羅志(1) 東國圖(1) 등이 있었다.

③ 子部

子部에 해당하는 전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儒家類： 16종 51책	天文·算法類： 1종 2책
道家類： 4종 4책	術數類： 26종 143책
兵家類： 4종 5책	藝術類： 2종 2책
農家類： 2종 5책	譯學類： 1종 1책
醫家類： 18종 108책	類書類： 19종 101책
雜家類： 13종 70책	其他宗教： 2종 2책

우선 儒家類부터 살펴보면 原本小學集註(2) 小學集註稿訂(1) 소학언해(小學諺解 2) 小學諸家集註(2) 四字小學(1) 明心寶鑑(1) 性命古訓(1) 公是弟子記(1) 書

社輪誦(1) 朱子治家法(1) 御製性理大全(1) 近思錄(3) 孔氏家語(1) 太極圖(1) 天地萬物造化論(1) 家寶全集(1) 吾道編次(1) 등이 있었다.

다음 道家類에는 南華真經(1) 老子上經(1) 老子道德經(1) 楊子法言(1) 등이 있었다. 兵家類로는 新刊增補三略直解(1) 新刊增註三略直解(1) 吳子直解(1) 懸吐六韜直解(1) 등이 조사되었다. 農家類에는 農政新書(1) 新刊救荒撮要(1) 등이 있었다.

醫家類는 18 종으로 景岳全書(1) 經驗方(1) 校訂醫學入門(1) 痘瘡經驗方(1) 萬病回春(1) 本草萬方鍼線(1) 本草綱目(2) 石室秘錄(1) 孫直人備急千金要方(1) 新刊萬病回春(1) 外科大成(1) 訂正東醫寶鑑(1) 增補單方新編(1) 增補繪圖鍼灸大成(1) 重訂驗方新編(1) 鍼灸撮要(1) 扁鵲心書(1) 皇帝內經素問靈樞(1) 등이었다.

雜家類로는 山錄(1) 萬山圖形(1) 新刻地理天機會元正篇體用括要(1) 涓吉龜鑑(1) 陽宅三要(2) 陰陽二宅全書(1)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2) 地理大成全書(1) 地理五訣(3) 地理傳道(1) 地理正宗(1) 등이 있었다.

術數類로 18 종이 조사되었는데 改良神機妙算鐵版數(1) 斷易大全(2) 卜靈正宗(1) 水鏡策(2) 新鑄曆法便覽象吉備要通書(1) 新增天機大要(1) 柳莊相法(1) 六壬神課(1) 六壬神課金口訣(1) 增補象吉備要通天大全(1) 增補壽世保元(1) 增補洪烟眞訣(1) 增補洪烟數作局法(1) 增刪卜易(3) 太乙數統宗大正(1) 通夫秘書要覽(2) 濛洛理數(2) 등이다. 藝術類에 속하는 것으로는 王羲之筆陳圖(1) 筆法(1) 등이 조사되었다.

類書類는 19 종이 조사되었는데 文字集(2) 文字類集(2) 博物志(1) 事文抄(4) 詳校事文類抄(2) 詩韻集成(1) 詩韻合璧(1) 新補彙語(4) 新編古今事文類抄(1) 新編玉叢(2) 新編彙語(2) 兒戲原覽(2) 儒骨必知(2) 劉氏鴻書(1) 增補註釋故事白眉(1) 增訂文字類集(1) 등이다. 譯學類로 華語類抄(1)도 조사되었다. 그의 宗教類로는 關聖帝君全書(1) 聖蹟圖(1)가 있었다.

④ 集 部

集部の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總 集 類 :	32 종 113 책	詩 文 評 類 :	2 종 2 책
別 集 類 :	18 종 45 책	小 說 類 :	3 종 3 책
書 簡 類 :	5 종 5 책	雜 著 類 :	32 종 32 책

우선 總集類에 속하는 것으로는 古唐詩合解(4) 唐宋八家文讀本(1) 唐詩三百首註疏(1) 唐詩始音輯註(1) 唐詩正音集註(1) 選賦抄評註解刪補(2) 詳說古文眞寶(1) 詳說古文眞寶大全(9) 詩宗(1) 詩品(1) 詩學含英(2) 五言唐音(1) 原本備旨古文眞寶(1) 離騷經(1) 增刊濂洛風雅(1) 增刪濂洛風雅(4) 重訂詩學含英(1) 楚辭(1) 등 18종이다. 別集類는 16종인데 그 내용은 劍南詩抄(1) 尤菴遺稿(1) 蘆峰先生文集(1) 東坡詩抄(1) 杜律(1) 晚梅集(1) 文谷集(1) 宋大家蘇文定公文抄(1) 宋書百選(1) 玉峰別集(1) 阮堂集(1) 虞註杜律(3) 雲齋遺稿(1) 類選杜詩五言律(1) 炭翁先生集(1) 등이다.

書簡類로 簡要近事(1) 簡牘精要(2) 新式草簡牘(1) 草簡牘(1) 등이 조사되었다. 詩文評類에는 2종을 조사하였는데 續靑丘風雅(1)와 新刊校訂增補圓機詩韻活法全書(1)가 그것이다.

小說類에는 謝氏夫人傳(1) 剪燈新話句解(1) 漢文諺吐九雲夢(1)이 있었다. 雜著類는 편의상 原文까지 포함시켰고 31종에 이르렀다. 擊吳楚軍取旗顯功名詩(1) 古今名家詩文(1) 起布衣談笑而塵之詩(1) 梅泉詩集(1) 茅溪(1) 無他言不復見賦(1) 小華集(2) 大明律(1) 金禹卿詩(1) 金龍徵七言律(1) 申紫霞詩集(1) 舫山詩稿(1) 瀛洲雜綴(1) 吾藥籠詩(1) 肉譜(1) 前村猶有未炊時詩(1) 周覽名山大川與燕趙間豪俊交遊詩(1) 中東詠物律選(1) 增補海東詩選(1) 天皇氏一萬八十歲詩(1) 秋史詩(1) 香山詩(1) 許舫山詩(1) 許押詩(1) 등이 그것이다.

(2) 保管狀態

전적보관상태는 대체로 불량하였다. 소장자들의 전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소장자를 찾아 절적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킨 다음, 전적을 꺼내 오는 것을 보면 그 보관상태가 소홀함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사과상자나 라면상자 등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니 원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쥐가 잡아 먹거나 아니면 비에 젖어 곰팡피어 있다거나 종이 썩고 있었다. 귀중한 자료니 잘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異口同聲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창고 한 구석에다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이었다.

한편 城山邑 新豊里 吳文福氏, 南元面 泰興里 金潤富氏, 涯月邑 納邑里 金勳錫氏, 納邑里 金孟玉氏, 納邑里 秦雲京氏 등 몇몇 분은 冊櫃에다 종이 쏘지 않도록 방충제까지 넣고 알뜰하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우기 전적이 오손될까봐 표지를 덧씌운다거나, 책 가장자리가 쉬 닳아지지 않도록 ‘감물’ (뚫감즙) 혹은 바닷고기피를 발라 보관하기도 하였다. 연중행사로 반드시 1년에 한두번 정성스럽게 햇볕을 쬐이기도 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典籍이니 잘 보관하는 게 후손들의 임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끔 옛장수에게 넘겨 주었다거나 필요 없을 것 같아 소각시켜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하루 빨리 恒久的 保存對策이 다각도로 강구돼야 하겠음을 절감했다.

(3) 特異한 典籍

조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목할 만한 特異典籍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된 391種 1,204冊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산재된 보편적인 것들이었다.

조사된 전적 중에서 그래도 논의할 만한 전적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㉞ 濟州府令辭要覽

- 著者 : 미상
- 版種 : 寫本
- 筆寫地 : 濟州
- 筆寫年 : 朝鮮朝末期
- 所有者 : 吳文福(南濟州郡 城山邑 新豊里 816)
- 界線 : 無界
- 行字 : 16行 字數不定
- 材質 : 楮紙

이 전적은 1896년 丙申 4월부터 同年 12월 사이의 濟州府 日誌이다. 진상, 난리 등 1년 동안의 濟州府의 행정적 움직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제주도 관계 史料로 그 가치가 크다. 표지에는 ‘濟州府令辭要覽’이란 書名과 함께 “丙申三月 日筆洞李等”이라는 識記가 있다.

㉠ 耽羅志

- 著者：李元鎮 (1594 ~ ?)
- 版種：木板本
- 刊行地：濟州
- 刊行者：高弘進 (孝宗朝)
- 刊行年：孝宗 4年 (1653)
- 匡郭：四周雙邊，
半郭 25.6 × 17.3 cm
- 所有者：金榮敦 (濟州市 我羅 1洞 363)
- 行字：半葉 8行 20字
- 註：雙行
- 黑口：白口
- 魚尾：內向 二葉花紋魚尾
- 規格：31.8 × 22.0 cm
- 材質：楮紙

이 耽羅志는 이미 제주도 연구에 있어 소중한 전적임은 잘 알려져 있다. 중간에 1장이 낙장되어 있을 뿐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婚禮笏記

- 著者：裕軒 (朝鮮)
- 版種：木板本
- 刊行地：濟州
- 行字：半葉 10行 22字, 6張
- 註：雙行
- 黑口：白口
- 所有者：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 (濟州市 我羅 1洞 1)
- 刊行年：哲宗 7년 (1856)
- 匡郭：四周雙邊, 半郭 23.6 × 17.4 cm
- 界線：有界
- 魚尾：內向 二葉花紋魚尾
- 規格：31.5 × 20.2 cm
- 材質：楮紙

이 婚禮笏記의 序末에 “歲丙辰(1856)五月 裕軒書”라고 되어 있다. ‘裕軒’을 집필한 장소로 볼 수도 있으나 著者の 堂號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인명사전 등에서 확인할 길은 없었다).

저자 裕軒이 제주도 婚俗이 너무 번잡하므로 婚俗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婚禮笏記를 만들고 이를 각마을에 배포했다는 서문 내용이고 보면 이 전적은 제주도에서 판각한 제주 木板本일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서 판각하였던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위의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고 본다.

부록으로는 諺文婚禮笏記가 있다. 총 6장으로 되었으며 1~3장까지는 한

북판에 줌이 쏠아서 글자를 판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부록의 ‘언문혼례홀기’로 재구가 가능하다.

㊤ 錦陽講案

- 著者 : 미상
- 註 : 雙行
- 版種 : 寫本
- 規格 : 24 × 22.5 cm
- 行字 : 12行 字數不定
- 材質 : 楮紙
- 所有者 : 吳文福 (南濟州郡 城山邑 新豐里 816)

著者 미상이나 序末에 “崇禎四甲子(1924)梧秋 西河任憲晦敍”라고 되어 있어서 任憲晦일 가능성이 길다. 善谷書室의 講規로서 서당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로 판단된다. 훼손된 부분은 없으며 대체로 잘 보관된 편이다.

㊤ 尤菴先生年譜

- 著者 : 宋煥世
- 界線 : 烏絲欄
- 版種 : 寫本
- 行字 : 半葉 11行 24字
- 筆寫年 : 英祖 46년(1770)
- 註 : 頭註
- 數量 : 4卷 2冊
- 規格 : 34.3 × 23 cm
- 匡郭 : 四周單邊, 半郭 24.2 × 18.4 cm
- 材質 : 楮紙
- 所有者 :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 (濟州市 我羅 1洞 1)

이 年譜는 宋時烈(1607 ~ 1689)에 대한 것이며 후손 宋煥世에 의하여 필사되었다. 보관상태는 양호하며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性命古訓

- 著者 : 미상
- 行字 : 半葉 9行 20字
- 版種 : 板下本
- 註 : 雙行
- 筆寫地 : 濟州
- 黑口 : 白口
- 筆寫年 : 朝鮮朝後期
- 魚尾 : 上下向 黑魚尾
- 匡郭 : 四周單邊, 半郭 18.5 × 12.1 cm
- 規格 : 24.1 × 16.6 cm
- 界線 : 有界
- 材質 : 楮紙
- 所有者 : 金勳錫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1,643)

이 전적은 性命에 대한 諸說을 모아 四書 등을 근거로 피력하고 있으며 板下本으로 추정된다.

이외의 특이한 전적으로 제주도를 소재로 다룬 詩集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筆寫本이며 유일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 漢詩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 항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 濟州關係 典籍

제주관계 전적은 예상외로 적었다. 그것은 소장자들의 전적에 대한 인식 부족과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으로 많은 전적이 소실되었거나 逸失되어 버린 데에도 큰 원인이 있겠지만 近者에 이르러 상당수의 제주관계 전적이 島外로 반출되어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전적조사 과정에서도 소장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 드러난 제주관계 전적류로는 耽羅志 濟州府令辭要覽 續修三綱錄 耽羅紀年 濟州島便覽 朝鮮襄輿勝覽 履歷 婚禮笏記 등 地誌 傳記 禮類에 관한 것들을 우선 들 수 있다. 耽羅志는 濟州 旌義 大靜 三邑의 建置沿革과 鎭管 姓氏 風俗 形勝 따위를 조목별로 기록한 地誌이며 이미 제주연구 인사들에게 잘 알려진 전적이다. 濟州府令辭要覽은 濟州府의 日誌이다. 續修三綱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濟州 旌義 大靜 三邑의 孝烈忠 행적을 고을별로 기록하고 있다. 耽羅紀年은 제주관계 기사를 國內外 史書에서 모아 고대로부터 조선조 말기까지 서술하였다. 濟州島便覽은 간행 당시 제주관계의 종합지에 해당되는 전적이다. 朝鮮襄輿勝覽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濟州관계로는 地理 人物 등을 수록하고 있다. 履歷은 大靜縣事와 大靜縣監의 到離任 관계 및 濟州民政의 救弊狀況 등을 비망록 형식으로 적고 있으며 부록으로 金正喜의 漢詩도 수록하고 있다. 婚禮笏記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제주 婚俗의 지침을 마련한 전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더우기 제주에서 판각한 木板本일 가능성이 짙다.

다음 地家書로 山錄 琢玉亭圖式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山錄은 제주 山勢를 韻文으로 기록한 것이며 明堂을 찾는 데 쓰였다. 琢玉亭圖式은 御

地理였던 塚玉亭이 그랬다고 전하나 그가 누구인지 불명하다. 이 圖式도 明堂을 찾는 데 쓰였고 各圖마다 설명을 담고 있다. 이런 地家書의 異本들을 조사자들은 흔히 접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옛날부터 활용가치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鄉校와 관계 있는 것으로는 濟州鄉校에 祭享費를 보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文廟祭享費添付文과 文廟修繕費를 낸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濟州鄉校文廟修繕費可考文 등이 있었다. 節目類로 靑衿生들이 낸 柴鐵을 質冊 자금으로 쓰게 하는 내용의 靑衿減柴鐵區處節目과 英祖 34년(1758)에 신설한 旌義縣安民庫節目이 있다. 安民庫節目에는 乾隆 38년(1773) 正月과 乾隆 52년(1787) 7월 및 乾隆 56년(1791) 2월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으나 중간중간 훼손된 부분이 있다.

教旨類로는 忠壯衛金大吉武科丙科第十七人及第出身者(仁祖 16년; 1638) 通德郎金羽瀝武科丙科第一百八十四人及第出身者(肅宗 34년; 1788) 幼學金龍徵進士三等第五十八人入格者(憲宗 9년; 1843)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全羅道 扶安으로 式年試를 치르게 나가도록 해달라는 濟州儒生蔡亨鳳等謹齋沐再拜上書(純祖 32년; 1833), 幼學秦永萬別監差定完文(高宗 5년; 1868)과 이에 대해 差定된 別監職을 遞歸하고자 濟州牧使에게 올렸던 別監秦永萬所志(高宗 5년; 1868) 등 等狀 完文 所志 따위도 조사되었다.

끝으로 이 지방 선비들의 詩賦類도 꽤 산재해 있었다. 金龍徵의 勅有司具粟百萬於京詔趙德明來取詩 周覽名山大川與燕趙間豪俊交遊詩 宣德殿南廡下芹嶺迎笑詩 起布衣談笑而應之詩 吾藥籠詩 天皇氏一萬八十歲詩 前村猶有未炊時詩 無他言不復見賦 등은 모두 그가 科舉場에서 應試할 때 지었거나 白日場에서 지은 것들이다.

개인 詩賦頌 등을 한데 엮은 것으로는 金龍徵七言律詩 金禹卿詩 蘭谷集詩集 栢園集 我石淸詠 秋史集 등이 있었다. 金龍徵七言律詩는 제주관계의 律詩 700여편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 漢詩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줄 안다. 金禹卿詩는 제주도 朝天面에 살았던 그의 漢詩를 모은 것이며 蘭谷集은 濟州人 金進士(이름은 불명)의 七言律詩를 모은 것이다. 詩集은 제주의 風物을 詩로 吟咏한 것이다. 栢園集은 北濟州郡 涯月邑 於道里에 살았던 姜宜璫의 七言律

詩集이다. 我石淸詠도 제주관계의 詩를 모아둔 것으로 제주문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秋史集은 金正喜가 제주유배 때에 남긴 五言 및 七言詩를 모았다.

이외에도 제주관계의 詩 賦 記 등을 모은 것으로 朴長復의 瀛洲稿와 편자 미상의 瀛洲雜綴 등이 있었고 金致叔의 行狀과 輓辭 등을 모은 茅溪와 金龍徵이 독서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類聚해 둔 肉譜 등도 있었다.

IV. 對策 및 問題點

(1) 對 策

귀중한 動產文化財인 전적보관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전적의 철저한 보존 관리가 전제되어야 典籍文化財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보관 상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거의 불량하다. 고작해야 사과상자 등에 넣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형편인데, 전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① 정확한 전적소재를 파악한 뒤 ② 당국에서 소장자를 찾아 연 1회 정도라도 순회하면서 점검 및 계도는 물론, 전적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인 보관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③ 우선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전적소재 파악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각지역의 典籍調査를 단기간의 1차 시행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 지역마다 2차 3차의 補充調査가 장기적으로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몇 차례에 걸친 조사에 따른 철저한 소재파악을 토대로 ②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④ 특이한 전적은 문화재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동산문화재의 값어치가 있다면 동산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이 될 때 이를 계기로 전적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드높아져 갈 것이다. 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연구소나 박물관 같은 기관에 그 복사본이라도 그 지역의 것은 한데 모아 보관함으로써 그 逸失을 막고 학술자료로 활용함과 더불어, 전적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여러 부를 복사하여 분산 보관하거나 필요한 인사들에게 나눠줘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관계 전적도 마찬가지다. 확인된 바로는 대부분이 제주도 역사 및 詩文에 관계되는 전적이므로 전공한 분들에게 조사내용을 알리어 각자 관련분야에 따라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제주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대부분이므로 逸失되기 전에 구체적인 활용대책이 서야 한다고 본다. 행정당국에서는 제주연구 기관 및 인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는 방법도 세워볼 법하다.

(2) 問題點

전적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만 요약할까 한다. 우선 조사기간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번에 전적조사를 실시하고 보니 짧은 기간 동안에 제주도를 샅샅이 누비고 다닌다는 게 벅찬 일이었다. 조사위원은 한정되었고 그 조사위원들이 전적조사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보니 더욱 어려움이 컸다.

전적조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제 2차, 3차의 補完調査가 실시되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위원도 다수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소장자들의 전적조사에 대하는 태도였다. 조사위원들이 조사차 소장자를 방문하면 “전적이 없다”든가 “조사하고 나면 혹 행정당국에서 가져갈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누누이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시키면 마지 못해 조사에 응해 주는 태도에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불신풍조와 기우가 민간사회에 뿌리 깊이 잠재해 있음이 실감된다. 어떤 분의 경우는 조사에 응해 주기는 하였지만 끝내 성명과 주소는 알려줄 수 없다 하여 부득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했던 경우마저 있었다. 물론 수고가 많다고 속삭까지 마

런해 주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분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깔린 피해 의식은 조사수행에 있어 커다란 장애였다.

셋째 아직까지 전적소재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조사보고가 결코 완벽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단지 제주도 전적류에 대한 조사의 시작일 따름이며 후일 전공자들의 완벽한 조사에 밑거름 구실을 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동안 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典籍文化財調査書

(1) 書名		1. 書名		2. 巻名		3. 題名		4. 巻名		5. 冊名		6. 冊名		7. 冊名		8. 冊名		9. 冊名	
(2) 著者		1. 著者		2. 著者		3. 著者		4. 著者		5. 著者		6. 著者		7. 著者		8. 著者		9. 著者	
(3) 版種		1. 版種		2. 版種		3. 版種		4. 版種		5. 版種		6. 版種		7. 版種		8. 版種		9. 版種	
(4) 因軸		1. 因軸		2. 因軸		3. 因軸		4. 因軸		5. 因軸		6. 因軸		7. 因軸		8. 因軸		9. 因軸	
(5) 行字		1. 行字		2. 行字		3. 行字		4. 行字		5. 行字		6. 行字		7. 行字		8. 行字		9. 行字	
(6) 規格		1. 規格		2. 規格		3. 規格		4. 規格		5. 規格		6. 規格		7. 規格		8. 規格		9. 規格	
(7) 序		1. 序		2. 序		3. 序		4. 序		5. 序		6. 序		7. 序		8. 序		9. 序	
(8) 刊記		1. 刊記		2. 刊記		3. 刊記		4. 刊記		5. 刊記		6. 刊記		7. 刊記		8. 刊記		9. 刊記	
(9) 所蔵印		1. 所蔵印		2. 所蔵印		3. 所蔵印		4. 所蔵印		5. 所蔵印		6. 所蔵印		7. 所蔵印		8. 所蔵印		9. 所蔵印	
(10) 備記		1. 備記		2. 備記		3. 備記		4. 備記		5. 備記		6. 備記		7. 備記		8. 備記		9. 備記	
(11) 合綴		1. 合綴		2. 合綴		3. 合綴		4. 合綴		5. 合綴		6. 合綴		7. 合綴		8. 合綴		9. 合綴	
(12) 内容		1. 内容		2. 内容		3. 内容		4. 内容		5. 内容		6. 内容		7. 内容		8. 内容		9. 内容	
(13) 所有者		1. 所有者		2. 所有者		3. 所有者		4. 所有者		5. 所有者		6. 所有者		7. 所有者		8. 所有者		9. 所有者	

調査年月日：19 調査者：

(印)

